
유문부 통과가 용이한 위·십이지장용 안내도관의 개발과 유용성 평가

아산재단 서울아산병원 방사선과 중재의학연구실

최원찬, 김태형, 신지훈, 임진오, 갈승환, 박훈희, 송호영

목 적 : 새로 개발된 위·십이지장용 안내도관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위·십이지장용 안내도관은 측부관의 유무에 따라 2가지 형태로 제작하였다. 측부관이 있는 안내도관의 경우, 직경 4 mm, 길이 90 cm의 테프론 튜브를 사용하여, 원위부로부터 4 cm 길이를 100° 정도 구부러 J자 형태로 제작하여 안내도관이 위의 유문부를 향할 수 있도록 하였고, 5Fr 카테타를 안내도관을 따라 삽입할 수 있도록 측부관을 안내도관의 옆에 부착하였다. 제작된 위·십이지장용 안내도관은 실리콘 재질의 인체 모형을 제작하여 유문부 통과와 용이성을 기존의 안내도관과 비교하였다. 평가는 임상에서와 동일하게 시술을 재현하여 안내도관에 안내철사나 카테타를 삽입하여 안내도관의 이동 거리를 측정하였다.

결 과 : 안내철사 삽입 시 기존의 안내도관의 경우 8.40 ± 0.51 cm, 측부관이 없는 안내도관의 경우 6.23 ± 0.41 cm, 측부관 부착 안내도관의 경우 4.47 ± 0.32 cm의 이동이 있었고, 카테타 삽입 시 각각 7.22 ± 0.70 cm, 5.61 ± 0.31 cm, 3.91 ± 0.59 cm 이동하였다.

결 론 : 새로 개발된 위·십이지장용 안내도관은 위·십이지장의 중재시술 시 짧은 이동 거리로도 안내철사나 카테타를 유문부로 용이하게 유도할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